

# 오징어게임2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바이벌 게임 우승자와 주최자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게임을 한다. 눈 내리는 밤, 길가에 쓰러진 노숙자를 사람들이 도와줄 것인가를 두고, 기한은 자정까지다.

인간의 선함을 믿지 않는 주최자는 아무도 돕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우승자는 그 반대에 베풀었다.

수많은 사람이 노숙자를 스쳐 가면서 우승자의 마음이 타들어 가던 때, 자정 직전 경찰과 신고자가 찾아와 노숙자를 구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1 최종화에 등장한 성기훈(이정재 분)과 오일남(오영수)의 마지막 내기 장면은 '오징어 게임2'를 관통하는 메시지와 달랐다.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2'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이고 오래된 질문을 시청자에게 던진다.

시즌2에서 주인공 기훈은 여전히 인간 내면의 선함을 믿는 인물이다. 456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넣었지만, 돈 있는 자가 절박한 사람들을 두견처럼 몰아내고 유희 거리로 만드는 이 게임을 멈추려고 든다. 세상을 떠난 주최자 오일남을 대신해 프론트맨(이병헌)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강변한다.

프론트맨 역시 기훈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고, 게임에 참가해 우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기훈이 게임 밖에서는 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 다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했듯이, 프론트맨은 기훈의 믿음에 꺾기 위해 기꺼이 가면을 벗고 게임 참가자로 나선다. 둘 다 같은 경로를 밟아왔지만, 가진 신념도 행동도 정반대다. 기훈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제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3년만에 시즌2

성기훈 vs 프론트맨 인간성 논해

456명 게임장은 현실세계 축소판

시즌3와 동시 촬영...내년에 결말 공개

시즌 내 통과하지만, 총에 맞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444번을 구하기 위해 다시 운동장에 뛰어든다.

반면, 프론트맨은 짝짓기 게임 도중 자신과 동료를 살리기 위해 자기 손으로 다른 참가자의 목숨을 끊는다.

"내가 보여줄게. 세상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훈은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게임에 뛰어들었지만, 참가자들의 마음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

456명이 모인 게임장은 현실 세계의 축소판이다.

참가자들은 서로 협력관계를 맺으며 크고 작은 무리를 형성하고,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세를 불린다. 기훈도 동네 친구 박정배(이서현)와 가장 먼저 손을 잡고, 게임을 거지면서 조금씩 믿음직한 사람들로 동료로 꾸린다. 게임을 할 때는 서로 믿고 의지하던 팀원들도 상급 앞에서는 끝내 갈라진다.

'오징어 게임2'에서는 모든 게임이 마무리될 때마다 생존자들을 모아놓고 게임 수행과 중단을 다수결 공개 투표로 결정한다.

게임 관리자가 '자유', '자발',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며 투표를 진행하지만, 모든 투표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며 그 결과가 합리적이지도 않다.

각자의 사정, 채무의 규모,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 게임을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시즌2는 게임의 규모를 키우면서 자극적인 설정도 더했다. 전작에 없었던 마약, 임신부, 가상화폐 등이 등장하고, 개개 조연 캐릭터에도 다양한 서사를 붙여넣었다.

알록달록한 벽 너머 일꾼과 병정, 관리자의 삶이 더 자세히 묘사됐다.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영업사원 역할인 양복남(공유)의 배경, 프론트맨의 사연, 북한 군인 출신인 노을이 일꾼으로 채용되고 일하는 과정 등을 묘사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다만, 시청자가 캐릭터의 서사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쌓기 무섭게 등장인물들이 하나씩 죽어 나간다.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총 7화에 걸쳐 등장인물 수백명을 끊임없이 죽인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캐스팅 논란을 부른 최승현(박병 탭)이 연기한 타노스라는 캐릭터는 전체 이야기에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등장한다. 게임 내내 악역에 취해 행동하는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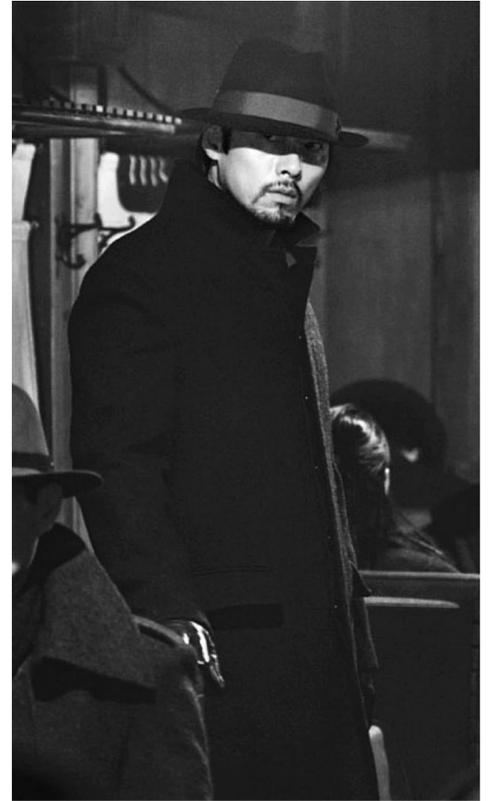
시즌2는 소설 구성의 5단계인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가운데 절정에 해당하는 위기에서 딱 멈추어 선다.

제작진은 인간이 과연 선한지, 개인이 불합리한 시스템에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답은 시즌3으로 미뤄냈다.

시즌2와 시즌3이 동시에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에 시즌3이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하얼빈' 극장가 강타

이틀만에 100만 돌파...예매율 51.7%



영화 '하얼빈<사진>'이 개봉 이틀 만에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25일 배급사 CJ ENM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하얼빈'은 개봉 첫날인 전날 38만명이 관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2년 12월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 사흘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것보다 빠른 속도다. '아바타: 물의 길'은 최종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하얼빈'은 전날 38만1000여명(매출액 점유율 63.9%)이 관람해 '소방관'을 제치고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바탕으로 이곳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의 추적과 의심을 그렸다. 현빈, 박정민, 조우진 등이 출연하고 우민호 감독이 연출했다.

아이맥스(IMAX) 포맷 등의 영상미가 대체로 호평받지만, 이야기 전개 속도와 무겁고 건조한 연출에는 관객의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CGV가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골든에그 지수는 87%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소방관' (93%), '무파사: 라이온 킹' (93%), '모아나 2' (92%) 등보다 낮은 수치다.

중전까지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켜온 '소방관'은 전날 8만 1000여명이 관람해 2위로 내려왔다.

'무파사: 라이온 킹' (2만7000여명), '모아나 2' (2만6000여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얼빈'은 예매율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많은 관객 수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하얼빈'의 예매율은 51.7%, 예매 관객 수는 59만5000여명이었다.

'소방관' (9.5%), '모아나 2' (7.6%), '무파사: 라이온 킹' (7.5%)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시즌1 복습

공식 예고편

성기훈

프론트맨

오징어게임

## K-콘텐츠 올해 수출 상담 1조2000억원

3800억원 수출 계약...내년엔 스페인·태국 등 사업 범위 확대

올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수출 상담 실적이 약 1조2000억원, 수출 계약이 3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사업 결산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개최',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8억2809만달러(약 1조1902억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중 총 2억6962만달러(약 3865억원)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프랑스,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진행된 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사업에선 총 5억8975만달러(약 8474억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중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뤄진 액수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1억8338만달러(약 2635억원)에 달했다.

지난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1억4700만달러(약 2111억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냈다. 이중 지난 20일까지 8624만달러(약 1230억원)의 계약이 이뤄졌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의 콘텐츠를 모아 전시한 'K-OTT 홍보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실시한 중소제작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선 9134만달러(약 1312억 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실제 계약액은 아직 집계 중이다.

문체부는 내년에는 스페인과 태국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환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콘텐츠 제작·유통기업과 토종 OTT를 포함한 콘텐츠-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과 동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계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석당화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후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물**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 062)222-6866

**민생 경공매 연구소**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2층  
경력30년대표토목식각감, 재개발공부여합계투자기능  
총40시간수강료200만원 민법/절형법/형량판결기초강의  
기초~실전 유제출산 특강  
☎ 010-7638-6918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물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탁임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탁임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찜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